

링컨의 향기.. 그가 사랑 받는 이유

글. 총재 장세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역경은 견딜 수 있다.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갖게 해보아야 한다 (Nearly all men can stand adversity, but if you want to test a man's character, give him power.)”
 “나에게 나무 베는데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If I only had an hour to shop down a tree, I would spend the first 45 minutes sharpening my axe.)”
 1861년 3월부터 1865년 4월 암살당할 때까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다. 그의 리더십에 대한 책과 기사들만도 만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은 링컨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위대한 국가의 리더로 만들었을까? 아니, 왜 그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멸의 리더

링컨의 인생을 보면 성공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실패는 있었으나 패배하지는 않았다. 그가 자라난 환경 하나만 보아도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는 1809년 2월 12일 미국서부 변방 개척지에 가난한 목수 토마스 링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틀에서 자라났다. 그의 어머니 낸시 행커스 링컨은 미혼모의 딸이었다. 둘 다 문맹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27번의 실패를 통해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8세에 친어머니의 죽음, 15세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고, 23세에 사업실패, 24세에 주 의회 선거 낙찰, 25세 파산, 26세 약혼녀 사망, 28세 신경쇠약으로 병원입원, 30세 주 의회 의장직 선거패배, 35세 하원의원 선거낙선, 36세 하원의원 공천 탈락, 38세 하원의원 재선거 낙선, 42세 둘째 아들 사망, 47세 상원의원 낙선, 48세 부통령 후보 낙선, 50세 상원의원 낙선, 53세 셋째 아들 사망 등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할 때 마다 그는 다시 일어났다. 리더는 쓸어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쓸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다 단 한번에 대통령이 되어 인류역사상 노예해방이라는 큰 업적을 세운 지금까지도 존경 받는 리더의 상징이 되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게 마련이다” 링컨이 한말이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것은 링컨은 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역경의 고비를 이겨 냈다는 것이다. 그가 하도 실패를 거듭하자 그의 친구들이 그가 혹시 자살이라도 할 까봐 걱정이 되어 그의 집에 와서 면도칼 등 자살할 만한 도구들을 치웠다는 전설도 있다.

목적과 원칙이 있는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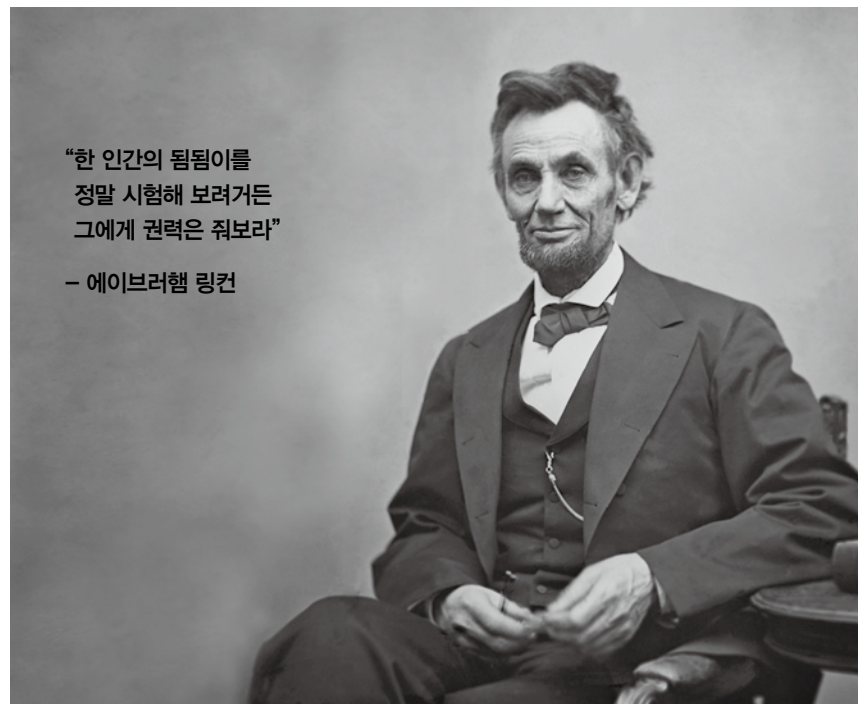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세월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인생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인생의 확실한 의미와 목적 가졌던 사람이다. 그는 또한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라는 말을 남긴 매우 긍정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계급이 없는 국민과 국가 통합 이었다. 링컨은 국가의 장기적 분열과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노예를 해방시킴으로 국민의 계급제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 때문에 그는 남북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결국 승리하여 미국역사상 노예제도를 폐한 존경 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노예폐지를 위해 헌법수정안을 국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로 통과시켜야만 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25 찬성표가 더 필요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받아야만 했으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성공시킨 사람이다.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권력의 과시보다 자신의 꿈을 중요시 여긴 소중한 사람이었다.

링컨은 1861년 3월에 대통령이 된 후 곧 이어 1862년 9월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과감한 선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선포는 곧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결과가 좋으면 어떤 비난도 문제가 안되지만, 결과가 나쁘면 천사 10명이 변호해줘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신념과 결단의 리더였다. 원칙 앞에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기작전을 쓰기보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보호를 중시 여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변혁적 리더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의 정치적 스피치를 보면 정치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한적도 있지만, 일단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이후에는 그는 자신의 본심을 확고하게 드러내어 그가 평생 추진해 왔던 진정한 국가통일과 노예제도 폐지 모두 함께 이루어 내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정치가이자 사회운동가였음을 알 수 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당시, 남부는 강경하게 노예제를 반대해 온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면서 링컨의 당선 직후 연방탈퇴를 선언하고 데이비드 제퍼슨을 남부연합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한 인간의 됨됨이를
정말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권력은 줘보라”
- 에이브러햄 링컨

반면 링컨은 어느 주도 미연방에서 탈퇴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였고, 그 결과 그의 취임 1달만에 남북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중 링컨은 재선에 성공하였고, 결국 1865년 남북전쟁은 남부의 항복으로 끝나게 되었으나, 종전 11일 후 링컨은 극장에서 극렬한 남부 지지자였던 배우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되었다. 이렇게 링컨이라는 큰 별이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자 종전의 기쁨은 링컨의 죽음이라는 슬픔으로 뒤 덮이게 되었다.

전쟁과 자신의 목숨의 값은 치렀으나 링컨이 남긴 미국은 링컨 이전 조지 워싱턴이 물려준 미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워싱턴이 남긴 미국은 각 주의 연합체였을 뿐 한 나라라는 의식은 희박했었다면, 다시 말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나 해체할 수 있는 연맹이었다면, 링컨이 물려준 미국은 온전한 하나의 나라이자 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라 할 수 있다. 영어로도 링컨 이전에는 United States are로 쓰였으나, 링컨 이후부터는 The United States is 라고 복수형에서 단수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링컨은 세상을 떠났으나, 미국은 남북통일과 노예해방이라는 링컨의 목적달성을 선물로 간직하게 된것이다. 링컨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목적달성을 위해 큰 대가를 치른 신념과 결단을 실천한 변혁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공동체적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긴 지도자였음에 분명하다.

드림 팀을 형성할 줄 아는 리더

링컨은 혼자 개혁을 꿈꾼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드림 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싸우던 라이벌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를 만들 줄 아는 대범한 리더였다.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강하고 겸손한 리더였음에 틀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무섭게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한 참 애국자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슈워드는 당시 링컨 외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또 하나의 지도자였고 정치적인 입지도 탁월한 자였다. 링컨은 슈워드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 후 그의 라이벌이었던 슈워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슈워드는 몇달 후 링컨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었다. 또한 링컨이 무능하다고 비난해왔던 에드워드 베이치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 당인 민주당의 지도자였으며 링컨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체이시를 재무장관에 앉혔다. 이렇게 정당을 초월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인재들을 모아 자신의 드림 팀을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다. 그는 자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이나 경쟁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어떻게 보면 내면이 아주 강한 위대한 사람이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치판에서는 보기 드문 지도자였다.

겸손하지만 재치를 갖춘 리더

링컨은 강한 심장을 가졌으나 겸손함과 재치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었다. 정치적 라이벌 더글러스와의 논쟁에서 더글러스가 링컨은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비난하자, “저한테 얼굴이 하나 더 있다면 잘 생긴 얼굴을 하고 나왔지 이 얼굴을 하고 다니겠습니까!”라고 받아 치자 링컨을 망신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다 링컨의 반격에 도리어 할 말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링컨은 당시 빼빼 마르고 굉장히 매력 없는 사람으로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거기다 남부의 특유한 사투리까지 약간 섞인 억양과 덩치에 비해 아주 가는 목소리를 가진 촌스럽게 생긴 사람이어서 정치가들이 그를 고릴라에 비유한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링컨의 모습은 매우 인격이 높은 존엄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로서 우리는 인격이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한 명문 출신 상원의원이 “내가 지금 신은 구두도 토머스 링컨이 만든 것인데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며 대놓고 아버지 토머스 링컨을 언급하며 링컨을 조롱하고 비웃자 링컨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의원님, 제가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도 구두를 조금은 다룰 줄 아니까 혹시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다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어깨너머로 배운 거니까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재치 있게 받아넘긴 사람이 바로 우리모두가 존경하는 미국의 오늘을 개척한 링컨대통령이다. 이것이 링컨의 향기... 그가 사랑 받는 이유다. 🌻

